

● 祝 辭

出版界는 圖書館界의 協助를 바란다

大韓出版文化協會長 韓 萬 年



우리 나라 圖書館界의 進路를 協議하는 重要한 모임에 出版界를 代表하여 이렇게 祝辭를 드리게 되었음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더우기 이 大會가 韓國圖書館協會 創立 20周年을 맞은 해에 있게 되니, 여러 分의 感懷가 클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眞심으로 祝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며칠전에 全國圖書展示會를 마쳤습니다. 여러 분이 아시다시피 이 圖書展은 讀書運動의 一環으로 一般으로 하여금 讀書意慾을 고취시켜 讀書層을 擴大시키는데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每年 年例行事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讀書運動은 어느 特定한 團體 혼자서만 해서 實效를 거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圖書館界를 비롯한 여러 隣接分野가 各各 주어진 與件속에서나마 같이 行動해서 協助 推進해야만 完備된 效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여러 圖書館人들은 모든 知識의 貯藏庫라고 할 수 있는 圖書館을 통해, 各種 出版物을 整理하여 一般市民에게 奉仕함으로써 讀書運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 出版文化를 向上시켜오고 있습니다.

1974年 한해 동안에 우리 나라에는 7千餘種의 一般圖書가 出版되었습니다. 이 出版量은 아시아에서 日本, 印度 다음가는 順位에 있으며, 저희 出版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條件을 除去해 가면서 繼續 良書出版에 努力할 것입니다.

이에는 全體 圖書館人들의 前과 다른없는 協助와 具體的인 편달이 따라야 할 것으로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새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외람되오나, 遺憾인 것은 우리 나라 圖書館法이 아직도 制定 當時의 狀態인 것으로, 發展 變化하는 우리 現實과 距離가 좀 멀다는 點입니다. 이 點은 뜻있는 여러 圖書館人 자신들도 同感하고 계신 줄 아오며 이는 하루 속히 現實에 맞도록 改定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圖書館界에 從事하시는 여러 分의 地位도 改善 向上되어 갈 것이며, 따라서 보다 많은 良書도 出版되어 世界出版文化國의 隊列에 끼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大會를 통해서 여러 분이 希願하시는 모든 結果를 가져오기를 衷心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1975年 11月 3日